

북한의 중국 교역 통로 - 변경 무역

곽복선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부 과장

날로 중요도를 더해 가는 변경 무역

머리말

주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교역 유형은 크게 일반 무역(바터트레이드 포함), 무상 지원 및 변경 무역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일반 무역과 무상 지원은 다른 나라와의 교역과 별다른 유형 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변경 무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만 이루어지는 특수한 무역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일반 무역과 무상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비교적 자주 언론에 회자되어왔다. 그러나 정작 북중 교역 가운데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한 축인 변경 무역에 대해선 자료의 부족과 그 실상의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저 막연히 중국과 교역할 경우에 변경 무역을 활용하면 관세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알고 있는 정도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본 고에서는 흔히 거론되는 변경 무역이

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북중간 변경 무역의 현황은 어떠한지,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중 교역 개요

북중간의 교역은 지난 1993년 8억 9,000만 달러에 달함으로써 최정점에 이르렀으나, 그후 1994~97년 기간은 약 6억 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8년부터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교역 감소세 속에서도 변경 무역이 북중간 전체 교역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對중국 수출 창구로서 변경 무역의 중요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체 북중 교역 통계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대중 교역 가운데 변경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에는 32.2%였으며, 1998년 32.0%, 1999년 상반기에는

〈표 1〉 북중간 교역 현황 및 변경 무역

(단위: 천 달러, %)

구분	1997	1998		1999. 1~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무역액(A)	656,289	413,018	-37.1	150,445	-20.9
수출액(B)	121,610	57,313	-52.9	18,099	-40.5
수입액(C)	534,680	355,705	-33.5	132,345	-16.5
변경 무역					
총액(D)	218,111	130,581	-40.1	45,374	-27.9
수출액(E)	58,423	37,659	-35.5	14,451	-5.8
수입액(F)	159,688	92,921	-41.8	30,922	-35.0
변경 무역 비중					
총액(D/A)	32.2	32.0		30.2	
수출(E/B)	48.0	66.0		79.8	
수입(F/C)	29.9	26.0		23.4	

자료: 중국해관 전산 통계.

30.2%로 전체 교역의 1/3이 변경 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對중국 수출에서 변경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48.0%, 1998년 66.0%에 이어 1999년 상반기에는 79.8%로 오히려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변경 무역을 빼놓고는 북한의 대중 수출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즉,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점점 더 변경 무역 방식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변경 무역이란?

변경 무역의 개념은 북한측에서 내놓은

개념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자국의 필요를 위해 제시한 제도이다. 이는 중국 변경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국인 북한에게 상당한 플러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¹⁾

중국 정부는 경제가 낙후된 자국의 변경 지역들이 인근국들과 원활한 경제 교류를 가짐으로써 경제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들 지역과 인근국간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수입 관세, 증치세 상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고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칭 변경 무역이라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 1984년에 「변경무

1) 변경 무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무상 지원과 같이 일반적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며, 결코 북한에게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제 베트남, 러시아 등과의 변경 무역액은 상당액(북중간 변경 무역액의 몇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관리법」(邊境小額貿易暫行管理辦法)을 제정하였으며, 근년 들어 이를 보장하는 일련의 법규들을 발표하였다.²⁾ 同법규에 따르면, 변경 무역은 변경소액무역(邊境小額貿易)과 변민호시무역(邊民互市貿易)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변경소액무역이란 인근국과 육지로 변경선을 맞대고 있는 변경 지역(중국 정부가 허가한 지역)에서, 변경소액무역 권한을 갖고 있는 기업³⁾이 정해진 변경 세관을 통해 인근국 변경 지역 기업 또는 무역 기구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3국 생산품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인근국 원산지 증명을 필요로 한다. 변경소액무역 관련 법규에 따르면, 담배, 화장품 및 중국 법규에 따라 반드시 과세해야 하는 제품을 제외한 소재품에 대해 2000년 말까지 수입 관세 및

증치세를 50% 감세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민호시무역이란 변경선 20 km 이내에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개설된 개방 지역 또는 시장에서 일정 금액(또는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품의 교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변민호시무역의 거래 상품은 생활 용품에 국한되어 있다. 1 일 1인당 인민폐 3,000 원(한화 약 4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수입 관세와 증치세를 면세해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부분에 대해 관세와 증치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훈춘의 추옌허시장이 이에 속한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변경소액무역과 변민호시무역을 간략히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한편, 중국세관을 직접 접촉하여 파악한

<표 2> 변경소액무역과 변민호시무역

구분	품목	세제 우대
변경소액무역	화장품, 담배 및 법규상 반드시 과세 대상이 되는 물품은 제외	2000년 말까지 관세·증치세 50% 감면
변민호시무역	생활 용품에 국한	RMB 3,000 원/일/인 범위에서 면세. 초과 부분은 과세

2) 國務院關於邊境貿易有關問題的通知(國發「1996」2號 1996. 1.3), 邊民互市管理辦法 1996. 3.29, 海關總署令 第56號), 邊境小額貿易和邊境地區對外經濟技術合作管理法(對外貿易經濟合作部海關總署 1996. 3.29), 對外貿易經濟合作部, 海關總署關於進一步發展邊境貿易的補充規定的通知(「1998」外經貿政發 第844號).

3) 변경소액무역 기업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각 지역의 변경 무역 기업의 총숫자를 결정하며, 각 지방은 이 총숫자 범위 내에서 자체 심사·비준한 후, 이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 최종 심사 비준을 받아 결정하며, 해관총서 및 국무원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표 3〉 변경 무역시 세제 감면을 받지 못하는 품목

1. TV 2. 촬영기 3. 비디오 4. 에어컨 5. 냉장고 6. 세탁기 7. 카메라 8. 복사기 9. 공제시스템 전화 교환기
10. 마이크로 컴퓨터 및 주변 기기 11. 전화기 12. 무선호출기시스템 13. 팩스기 14. 전자 계산기 15. 타자기 및
문자 처리기 16. 가구(기업 생산 라인용 화물비치대, 실험실용 실험대 제외) 17. 주방 용구 18. 음향 설비 19.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바에 따르면, 변경 무역에서 관세 및 증치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품 리스트(법규에 따라 관세와 증치세를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물품)는 〈표 3〉과 같다.

북중간 변경 무역 현황

개황

북중간에 이루어지는 변경 무역은 대부분 변경소액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⁴⁾ 1998년도 북한의 대중 교역은 37.1%나 감소하는 급감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변경 무역도 40.1%의 대폭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북한의 변경 무역 對 중국 수출 감소폭이 수입보다 상당히 완만한 상황을 보임으로써 변경 무역을 통한 對중국 수출 비중은 오히려 66.0%로 전년의 48.0%

보다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對중국 수출 가운데 변경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중간 변경 무역은 북한산 수산물, 목재, 한약재, 누에고치, 고철 등과 중국산 저가 경공업 생필품, 의류 및 곡물류, 전자 제품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결제 수단 부족으로 상당 부분은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북한과 중국간의 변경 무역은 지역적으로 보면 변경 무역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랴오닝성(遼寧省)의 댄둥(丹東)과 지린성(吉林省)의 훈춘(琿春)이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이들 두 도시는 북한과 맞닿아 있거나 근 거리에 있어 육로를 통한 교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부여하고 있는 대북 변경 무역 권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이들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4) 중국해관통계는 변경소액무역만을 집계하고 있으며, 변민호시무역은 별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

5) 사실, 중국측이 발표하는 무역 방식별 북중 교역 현황을 보면, 1998년의 경우 변경소액무역은 1억 3,058.1만 달러, 바터 무역(易貨 貿易)은 452.1만 달러로 각각 분리 집계되고 있어, 변경소액무역 상에는 바터 무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 이것은 변경소액무역 상의 물물 교환은 변경소액무역으로 구분되고, 일반 거래의 물물 교환은 말 그대로 바터 무역으로 나누어 집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변경 무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변경 무역 주요 통로

○ 댜둥시(丹東市)

신의주 맞은 편에 위치한 댜둥시는 북한의 對중국 교역 창구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표 4>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

KOTRA가 현지 관련 기관을 통해 입수한 1998년 댜둥시의 대북 교역 현황에 따르면, 댜둥시를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입이 전체 북중 교역의 56.4%(수출 43.5%, 수입 58.5%)나 된다. 더욱이 변경 무역액 가운데 57.3%(수출 43.3%, 수입 63.0%)가 댜둥을

경유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금년 1/4분기에도 댜둥을 통한 북중간 변경 무역 총액은 1,878만 달러에 달했으며, 그 가운데 북한의 對중국 수출액은 377만 달러, 수입액은 1,501만 달러에 달했다.⁶⁾

댜둥 지역과 북한간의 전체 교역 현황은 <표 5>와 같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對중국 수입은 주로 위탁 가공용과 변경소액 무역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對중국 수출은 변경소액무역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댜둥시는 중국내 최대 변경 도시로 최근 몇년 동안 지리적 이점을 활용, 변경 무역 발전에 나섬에 따라 변경 무역에 종사하는 업체 수가 160여 개에 달하게 되었다.⁷⁾ 또한 변경 무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댜둥시는 지난 5월 초에는 변경무역전시회를 개최하여 북한

<표 4> 댜둥(丹東) 경유 북한의 對중국 교역(1998)

(단위: 천 달러, %)

구분	수출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북중 교역	413.018	-37.1	100.0	57.313	-52.9	100.0	355.705	-33.5	100.0
(댜둥 경유)	(232.390)		56.4	(24.933)		43.5	(207.970)		58.5
변경 무역	130.581	-40.1	32.0	37.659	-35.5	66.0	92.921	-41.8	26.0
(댜둥 경유)	(74.805)		57.3*	(16.302)		43.3*	(58.503)		63.0*

자료: 중국해관통계 및 관련 전산 통계.

주: *는 변경 무역액 가운데 댜둥 경유액의 비중임.

6) 1999년 1/4분기에 교역량이 적은 것은 북중 양국간 변경 무역이 일반적으로 김일성 생일(4.15), 정권 창건일(9.9), 로동당 창건일(10.10) 등 북한 국경일 전후에 집중되는 현상과 중국의 춘지에(春節: 구정) 연휴가 있는 2월 중에는 거의 모든 대외 거래가 정지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 댜똥(丹東)세관을 통한 북중 무역(1998)

(단위: 美 달러)

북한의 對중국 수출		북한의 對중국 수입	
무역 방식	금액	무역 방식	금액
일반 무역	1,495,990	일반 무역	123,250,423
위탁 가공	380,693	위탁 가공	15,350,410
변경소액무역	16,302,179	변경소액무역	58,502,873
바터 무역	939,339	바터 무역	2,671,416
보세 장교 화물	3,100,044	원조 및 기증	6,967,201
기타	2,714,685	기타	1,227,501
총계	24,932,930	총계	207,969,824

자료: 관련 해관 전산 통계.

과의 변경 무역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⁸⁾ 북한과의 무역 방식도 과거의 단순한 바터 무역에서 신용장을 통한 일반 무역, 중계 무역, 합작 투자 등의 다양한 경제 협력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댜똥의 對북한 변경 무역은 거의 대부분 중국산 저가 경공업 생필품, 의류 및 곡물류와 북한산 수산물, 목재, 한약재, 누에고치, 고철 등이 교환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댜똥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변경 무역 제품은 이미 북한내 평양·원산·개성·강원도 일대까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댜똥(丹東)시는 경제력 차이가 나는 북한과 변경 무역외에도 상호 보완을 이

룰 수 있는 사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북한의 주요 집축 창구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즉,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풍부한 천연 자원과 중국의 자본·기술을 활용하여 이미 댜똥 시내 8 개 기업이 북한에 판매업, 요식업, 가공 공장, 수산 양식업 등 분야에서 합자 기업을 설립하였으며, 투자 총액도 500만 달러를 초과하였다.

또한 댜똥시는 북한과의 관광 산업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어, 이미 양국간 관광 부문의 협력 하에 댜똥에서 북한의 평양, 묘향산, 개성, 금강산, 남포, 원산, 신의주 등으로의 관광 루트를 개발하였다. 즉, 댜똥시는 북한의 해외 관광 유치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7) 댜똥시 소재 대북 변경 무역 허가 기업은 1998년말 현재 127 개사로 1997년 대비 75 개사가 늘어났다. 이외 간접적으로 변경 무역에 참여하는 중개상을 포함하면 관련 업체는 160여 개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8) 관련 전시회에는 당초 10여 개의 북한 회사가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북한내 사정으로 인해 '만수대교려예술품센터', '조선장생합영회사', '조선대령강합작회사' 3 개사만 참여하였다.

이밖에 댜똥시는 외국 기업(주로 한국 기업)들의 북한 시장 개척의 주요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중국의 협력 파트너가 되고 있다.⁹⁾

○ 훈춘(琿春)

지린성(吉林省) 훈춘 지역은 훈춘-츄엔허(琿河)-원정리-나진으로 연결되는 북중 통상 루트로 댜똥-신의주간의 루트와 더불어 북중 간 2대 변경 무역 통로로 유명하다. 특히, 훈춘은 동해로의 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도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나진·선봉의 배후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댜똥의 대부분 기업들이 북한과 교역에 연계되어 있는 반면에, 훈춘은 러시아(주로 포시에트)와 북한 두 곳과의 변경 무역을 주로 하고 있다.

1997년부터 변경 무역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한 훈춘시는 당시 9 개에 불과하였던 변경 무역 기업이 1998년에는 16 개로 늘어났다. 물론 댜똥시의 160여 변경 무역 기업 수에 비하면 수적으로 상당한 열세를 보이고 있으나, 댜똥과는 달리 북-중-러 삼각형식의 교역을 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 특히,

훈춘시는 북한이 유일한 대외 개방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와 맞닿아 있다는 변경 무역 상의 이점을 안고 있어, 향후 북중 변경 무역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현재 훈춘과 북한과의 교류는 샤투어쯔(沙陀子)와 츄엔허(琿河) 두 개의 육지 세관(口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샤투어쯔(沙陀子)

샤투어쯔 지역은 여객이나 제3국인은 통과치 못하고 화물과 정부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만 출입할 수 있는 이급 세관(중국에서는 이를 二流口岸이라고 칭함)이다. 최근에는 츄엔허 지역에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교통이 편리해짐에 따라 샤투어쯔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중 양측은 관련 세관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6>과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샤투어쯔 세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화물·인원·차량의 수량은 다음에 이야기할 츄엔허에 비교할 때 극히 적은 숫자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츄엔허가 두만강 유역에서 북중간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샤투어

9) 댜똥은 중국의 대북 무상 지원 창구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원유, 식량 등이 대부분 댜똥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금년의 경우 중국이 북한에 지원키로 한 코크스 40만 톤 가운데 21만 톤이 댜똥을 통해 지난 8월부터 지원되고 있다.

〈표 6〉 사투어쯔(沙坨子) 세관 현황(1999. 1~7)

(단위: 톤, 명, 차량)

	입국			출국		
	화물	인원	차량	화물	인원	차량
1999. 1	7	136	2	90	149	2
2	27	136	3	80	130	3
3	23	109	10	60	102	10
4	16	112	11	68	133	11
5	38	144	18	0	167	19
6	29	173	8	39	175	8
7	35	131	10	5	139	10
합계	175	941	62	342	995	63

자료: 전계서.

〈표 7〉 사투어쯔(沙坨子) 세관 현황(1998)

(단위: 톤, 차량, 명)

구분	현황	전년 대비 증가율
화물		
수출입 총량	2,412	-56.7
수 입	709	-66.0
수 출	1,703	-51.1
차량		
출입국 총량	486	-58.1
입 국	240	-58.6
출 국	240	-58.6
인원		
출입국 총량	4,995	-48.2
입 국	2,497	-47.5
출 국	2,498	-49.0

자료: 전계서.

쯔 세관을 통한 화물·인원·차량의 유동 현황은 〈표 6〉, 〈표 7〉과 같다.

○ 추엔허(圈河)

추엔허는 중국 정부가 화물 통로와 여객

통로를 설치하고 제3국인도 통과할 수 있도록 일급 세관(一流口岸)으로 비준한 지역이다. 또한 추엔허는 변경 시장이 설치된 개방 지역(互市貿易區 또는 通商區)이어서 북한과 변경 무역의 가장 활발한 접점이 되고 있다. 실제로 추엔허세관을 통해 움직이는 유동 인

구는 연인원 5만 명(1998년 기준, 1999년 1~7월은 3만 명)으로 샹투어즈의 25 배에 달하고 있어 명실공히 북중간의 접촉 지역이 되고 있다(〈표 8〉, 〈표 9〉 참조).

이와 같이 북중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추엔허세관(圈河口岸)은 두만강 하류 지역(琿春市 敬信鎮 圈河村)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동해에서는 36 km, 훈춘시(시내 지역)와 39 km, 북한 나진항과 48 km 떨어져 있으며 북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원정리세관과 마주보고 있다.

추엔허는 온대 해양성 계절풍 기후지대에 있어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강우량이 610 mm,

〈표 8〉 추엔허(圈河)세관 현황(1999. 1~7)

(단위: 톤, 명, 차량)

	입국			출국		
	화물	인원	차량	화물	인원	차량
1999. 1	312	3,610	1,464	587	3,565	1,453
2	85	3,849	1,439	4,114	3,731	1,507
3	1,649	2,987	1,027	4,083	2,807	1,063
4	509	4,682	2,038	8,784	5,020	2,078
5	1,168	5,808	2,252	11,795	5,884	2,284
6	1,144	5,426	1,806	10,195	5,398	1,708
7	781	5,012	2,014	12,856	4,966	2,039
합계	5,468	31,374	12,040	52,414	31,371	12,132

자료: 전계서.

〈표 9〉 1998년 추엔허(圈河)세관 현황

(단위: 톤, 차량, 명)

구분	현황	전년 대비 증가율
화물		
수출입 총량	41,387	-40.8
수 입	3,182	-71.6
수 출	38,205	-35.0
차량		
출입국 총량	16,252	-0.3
입 국	7,863	-1.9
출 국	8,178	-0.2
인원		
출입국 총량	99,436	39.3
입 국	49,098	44.4
출 국	50,338	34.7

자료: 전계서.

凍土 최대 깊이 1.54 m, 최대 적설량 39 cm, 연평균 기온 5.7 °C이다. 추옌허세관 지역은 半산악 지역으로 토양이 좋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진 지역이다.

추옌허 공무통로에는 중국과 북한을 잇는 다리가 있는데 진장 500 m, 30~40 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북중국 양국이 공동 관리하고 있다. 최근 훈춘시 정부는 인민폐 150만 원(약 22억)의 자금을 투입하여 추옌허세관(圈河口岸)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250 m²에 달하는 국경 통과 검사장 건물을 신축하고 4,000 m²에 달하는 주차장, 통신, 수도, 전기, 난방 등의 부대 시설을 건설하였다.

추옌허(圈河)는 인구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통화(通化), 연베옌(延邊), 무단지양(牡丹江), 지아무쓰(佳木斯), 수양야산(雙鴨山), 이춘(伊春) 지역 등 거대 잠재 시장을 배후로 하고 있다.

특히, 同지역들이 추옌허-나진을 통해 동해로 나가는 수송로를 확보할 수 있다면 현재 따리옌을 통하는 화물 수송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여 수송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한국·러시아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높은 경제 성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훈춘-추옌허간 40 km·12 m 폭의 포장 도로가 닦여지면 향후 이 지역

을 통과하는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추옌허에 설치된 변경무역시장(圈河通商區)은 매주 세차례 場이 열린다. 장이 설 때마다 중국·북한 쌍방 각 200여 명의 상인이 同시장에서 교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훈춘 시민만이 거래증(互市貿易證)을 신청 취득한 후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 들어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상품은 인민폐 3,000 원(한화 약 45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관련 교역은 면세 처리되고 있다.

한편, 추옌허와 대칭점에 있는 나진·선봉무역지대의 원정리국제무역시장도 북중간 변경 무역의 중요 접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원정리시장은 매주 화·수·목 3일장으로 열리며 주로 중국·러시아·북한 3개국 무역 종사자들이 거래하고 있다. 거래 제품은 중국의 경공업품 및 식품, 러시아 특산품, 북한의 해산물 등이 물물 교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전망

중국세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까지 북중간 전체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9%의 감소(수출 40.5% 감소, 수입

16.5% 감소)를 보였으며, 금년에도 북중간 거래가 증가할 전망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표 10〉 참조). 변경 무역액 역시 6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7.9%의 감소를 보임으로써 절대적인 교역액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8년의 북중 교역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의 對중국 수출액이 줄어드는 반면 對중국 수출 가운데 변경 무역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올해에는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1997년 48.0%→1998년 66.0% 1999년 1~6월 79.8%). 이는 변경 무역의 주요 제품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채소류 등의 對중국 수출이 6월 말까지 상당폭 증가한 데 따른 현상이다. 북한의 대중

수출이 변경 무역을 통하지 않고는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우대가 없는 일반 무역 거래를 통해 중국에 수출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원래 1998년 말까지만 변경 무역에 관한 우대를 적용할 계획이었다.¹⁰⁾ 그러나 지난 1998년 11월 해당 부서인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해관총서가 공동으로 이를 2000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변경 무역 형식의 북중간 거래는 여전히 일반 거래에 비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¹¹⁾

현재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등 변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과의 전체적인 변경 무역은

〈표 10〉 북한의 對중국 교역 동향 (1999. 1~6)

(단위: 천 달러, %)

구분	금액	비중	증가율
수출입 총액	150.445		-20.9
(변경 무역)	(45.374)	30.2	(-27.9)
수출	18.099		-40.5
(변경 무역)	(14.451)	79.8*	(-5.8)
수입	132.345		-16.5
(변경 무역)	(30.922)	23.4**	(-35.0)

자료: 중국 해관 전산 통계.

주: *는 수출중 변경소액무역의 비중이고, **는 수입중 변경소액무역의 비중임.

10) 변경 무역 관련 문제에 대한 국무원통지(國務院關於邊境貿易有關問題的通知, 國發「1996」第2號 1996. 1.3).


11) 변경 무역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보충 규정에 관한 대외경제무역합작부, 해관총서의 통지(對外貿易經濟合作部, 海關總署關於進一步發展邊境貿易的補充規定的通知「1998」外經貿政發 第844號)에서 우대 기간을 연장하였다. 문제는 중국이 WTO 가입 후에도 이러한 변경 무역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2000년까지 연장한 우대 기간을 얼마나 더 연장할 것인지인데, 현재로서는 어떠한 확정적인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증가 추세(1999년 1~6월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9.6%, 수입 56.1%의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바로 이러한 교역상 유리한 여건을 이들 국가가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중국의 변경 무역액 가운데 북한과의 변경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중간 변경 무역도 어느 정도 여건만 호전되면 절대액 자체가 지속 증가할 여지는 높다고 하겠다(〈표 11〉 참조).

또한 판둥시나 훈춘시가 대북 경제 교류 상에서 변경 무역 방면에 점점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¹²⁾과 훈춘-츄엔허-원정리-나진으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¹³⁾을 감안하면, 이들 지역을 통한 변경 무역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¹⁴⁾

더욱이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고 제품의 경쟁력이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북한 입장에서는 세제 감면의 우대 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변민호시무역이나 변경소액무역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변경 무역 형식의 거래는 일시적인 금액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의 대중 교역 주요 패턴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표 11〉 중국의 변경 무역 총액 가운데 북한의 비중

(단위: 천 달러, %)

	1998		1999. 1~6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중국 전체(A)	804,616	1,212,901	421,985	840,313
북한 비중(B)	92,921	37,659	30,922	14,451
B/A	11.5	3.1	7.3	1.7

자료: 전계서.

12) 판둥과 훈춘의 변경 무역에 대한 설명에서 밝혔듯이 변경 무역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전시회 개최·북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북중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13) 육로의 중국측 부분의 포장에 금년내 완결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 지역의 관련 도로도 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4) 북한의 원정리와 마주하고 있는 츄엔허세관(淸河口岸) 통로는 1995년 개통된 이래 이 지역을 통과하는 유통량이 증가하였다. 1998년 통과 여객 수·통과 화물량 면에서 연변 각 세관 가운데서 1위를 차지하였다. 향후 두만강개발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관련 세관은 계속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부표〉 참조). 예측대로 진행되리라는 신빙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만일 이대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의 동북아물류센터로서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며, 변경 무역을 포함한 북중간 교역 및 교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부표> 추옌허(圖河)세관의 발전 전망¹⁵⁾

<p>전망 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의 발전 속도를 유지할 경우, 2010년 추옌허세관(圖河口岸)의 통과 여객 수는 59.8만 명, 화물량은 58.4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p>수출입 화물 시장의 잠재력 예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전망으로 볼 때, 중국 내에서 추옌허를 거쳐 수출되는 상품으로는 주로 곡물, 사료, 육류, 식품, 가전, 전기 기계 설비, 방직, 복장, 의약, 건자재, 시멘트, 목탄 등이 주종 상품으로 꼽힘 · 곡물 · 사료류: 지린성양식청(吉林省糧食廳)의 통계에 따르면, 지린성의 곡물 · 사료의 연간 수출량은 300만~400만 톤 정도에 달하며, 여기에 연간 200만 톤을 수출하는 헤이룽지양성(黑龍江省)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이 동지역 이용이 가능하게 됨 · 전기 기계 · 가전류: 현재 동품목의 수출량은 크지 않지만 중국의 산업 정책이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옌허를 통과하는 연간 물동량이 5만~1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 시멘트 · 건자재: 두만강 하류 지역의 각종 국제 합작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나진 · 선봉경제무역지대가 발전하게 되면, 각종 건자재와 시멘트의 수요량이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목제품류: 현재 중국은 백두산 일대의 삼림 자원을 이용, 우드 칩(wood-chip) 등을 수출하고 있으나 곧 수출보다는 목재 원목 수입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이 경우 동지역을 통해 연간 최소 1만 m³에서 최대 5만 m³의 목재를 수입할 것으로 보임 · 해산품류: 장기적으로 북한의 동해안 어획량은 백만 톤에 달할 전망이며, 특히 북한 당국이 어분(魚骨粉) 등 수산물 재가공 산업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북한에서 중국으로 관련 제품 연간 수출량은 10만 톤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임가공 및 중계 무역: 훈춘을 중심으로 한국 · 일본 기업의 투자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 러시아 · 북한 3국을 잇는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 중계 무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물동량이 연간 15만 톤 정도로 예측됨 · 결국 각 부문별 시장 발전 잠재력을 볼 때, 훈춘-러시아 포시에트를 잇는 수송로가 활성화되더라도 추옌허세관(圖河口岸) 경유 나진 · 선봉을 통하는 물동량도 장기적으로는 연간 60만 톤 정도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
<p>출입국 여객 증가 예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만강개발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면, 2010년에 추옌허세관을 통과하는 최대 연간 인원 수는 약 61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부분별로는 추옌허세관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가 연간 20만 명, 변경 무역 시장과 관련된 통과 여객수가 20만 명, 나진 · 선봉지역과 거래를 위해 통과하는 경제인 수가 5만 명, 친인척 방문객 5만 명, 노무 인력 교류 10만 명, 공무 출입국자 1만 명으로 예상됨

15) 추옌허세관 관련 여객 수 및 화물량과 관련하여 현지 유관 기관이 예측한 내용이다.